

# 아트팝·K가곡으로...부활의 노래

## 한국 가곡탄생 100주년

〈하〉 다시 주목 받는 한국가곡

길병민·이해원 정민성·박혜상 등 젊은 성악가들 새 장르 대중 소통 최근 TV 출연·앨범 출시도 잇따라 '눈' 작곡가 김효근 대중화 주도



소프라노 박혜상 작곡가 김효근 바리톤 김민성



김효근 작곡가의 앨범 '내 영혼 바람되어' (왼쪽)와 길병민 신작 앨범 '꽃 때'

1920년 한국 최초의 가곡 '봉선화'를 시작으로 '진달래꽃', '그네', '청산에 살리라', '강 건너 봄이 오듯', '저 구름 흘러가는 곳', '가고파' 등이 알려지며 가곡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노래의 유행과 향유방식이 바뀌면서 1980년대부터는 대중 가요가 유행했고, 지금은 K-POP이 주류가 되면서 가곡은 자연스레 사라졌다.

최근 TV와 음악앨범 등에 한국가곡이 다시 등장하면서 한국가곡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듯하다. '내 영혼 바람되어'를 만든 작곡가 김효근은 '아트팝'이라는 새로운 장르의 가곡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으며, 길병민, 이해원 등 젊은 성악가들이 윤학준의 '마중'을 비롯해 이원주의 '연', 최진의 '시간에 기대어' 등을 부르며 가곡의 대중화를 이끌어나가고 있다.

지난 7월 종영한 인기 프로그램 '팬텀싱어' 참가자인 소코는 '첫사랑'을 불렀고, 정민성·김바울·준노·고영열로 구성된 팀은 윤동주 시 창작 가곡인 '무서운 시간'을 선곡해 감동을 선사했다. 뮤지컬 배우 임태경도 '로또싱어'에서 '첫사랑'을 불러 눈길을 끌었다.

뮤지컬 배우 박은태가 부른 '내 영혼 바람되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620만을 넘겼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 남겨진 이에게 독백하는 형식으로 된 영시를 우리 말로 풀어 곡을 붙인 노래로 2008년 세상에 나온 후 많은 이의 상심과 슬픔을 달래왔다. 작곡자는 김효근씨다. 서울대 경제학과와 경영대학원을 졸업한 후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유학

했고 현재 이화여대 경영대학장이다.

그는 히트작 '내 영혼 바람되어'를 포함해 2010년부터 앨범 6장을 냈다. '눈', '첫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등도 인기 작품이다. 수수하고 음악적인 선율이 시어를 살려내는 노래들이고, 대중성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스스로 '아트팝'이라는 장르 이름을 붙였다. 혼자 터득해 만든 그의 노래 선율은 대중적이고 악기 반주는 소박하며 화성은 전통과 현대성을 넘나든다.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고 '팬텀싱어'를 통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바리톤 길병민은 지난 10월 첫 앨범 '꽃 때(A Time to Blossom)'를 발표했다.

'K팝도 있고 K드라마도 있는데 왜 K가곡은 없을까'라는 고민에서 이 앨범을 기획했다는 그는 '꽃 때'를 통해 한국가곡의 전형을 썼다. 전통에 뿌리를 두면서도 음악적 트렌드를 담아낸 K가곡을 선보인 것. 이번 앨범에 담긴 9곡의 신작 가곡 중 타이틀곡인 '꽃 때'는 작곡가 노영심이 곡을 만들고 시인 이병률이 노랫말을 썼다. 피아니스트

김정원은 프로듀싱과 반주를 맡았다.

지난 5월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회사 도이치그라모폰(DG)과 전속계약을 맺은 소프라노 박혜상은 최근 '아이 엠 헤라(I AM HERA)'를 발표했다. 이 앨범에는 헨델, 모차르트, 푸치니 등의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서정주 시에 김주원이 작곡한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와 나운영 작곡의 '시편 23편' 등 한국 가곡 2곡이 포함돼 화제가 됐다. DG 앨범에 한국 곡이 담긴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박 씨는 앨범을 발매하면서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 한국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국 가곡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밝혔으며, "도이치 그라모폰(DG)에게 한국 가곡이 낯선 노래지만, 그 경계를 허물어 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생겨 한국 가곡을 레퍼토리로 정했다"고 전했다. 박 씨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에 이어 DG 본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두 번째 한국인이다.

조현정 시인의 시도 아름다운 가곡으로 변신했다. 오페라와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바리톤 김민성은 지난 20일 자신의 첫 아트팝 앨범 '후애'를 발표했다. 조현정 시인의 노랫말에 박대웅 작곡가가 곡을 붙인 이번 곡 '후애'의 가사 원제는 '사월의 눈'이다.

'깊이 사랑함'이라는 뜻을 가진 '후애'는 가곡에 발라드 선율과 팝적인 요소를 가미해 편안하게 들리는 곡이다. 오페라·뮤지컬 배우, 음악감독 등으로도 활약 중인 바리톤 김민성의 깊은 울림과 더불어 '꽃잎 위에 저문 별들 하얗게 하얗게 내려앉네/지금은 그저 아름다워도 좋을 시간'이라는 노랫말이 마음을 움직인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온라인 어린이 가족문화축제 '하우편 6'

아시아문화전당 25~29일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온라인으로 체험과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어린이 가족문화축제가 열린다. 특히 랜선으로 만나는 국립생태원과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포럼도 준비돼 있어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전당장 직무대리 박태영)과 아시아문화원(ACI·원장 이기표)은 ACC 개관 5주년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누리집을 활용한 온라인 체험 콘텐츠 '하우편 6'을 개최한다. 이번 '하우편 6' 주제는 '평화를 꿈꾸다-Peaceful ACC'.

온라인 학습 콘텐츠에선 이억배, 권운덕, 김환영, 김희숙, 조경희 작가의 책으로 떠나는 랜선 여행이 마련돼 있다. 민주, 인권,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어린이문화원 온라인 교육과 연계한 '신기한 동화', '따뜻한 가족이야기', '놀러와, 이야기숲으로' 프로그램도 만날 수 있다.온라인 볼

이 콘텐츠에서는 '세친구', '하티와 광대들', '나무의 아이' 등 어린이 공연을 영상으로 만난다. 또한 '엘 리가 간다'와 공모 당선 체험 콘텐츠 영상을 제공하며 다양한 아시아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ACC 특별 콘텐츠 속 비밀책방은 광주 지역 소규모 서점과 어린이 가족 대상으로 도서 정보를 제공한다. 공모전에 선정된 ACC 웹툰은 어린이의 인권의식을 고취하는 데 초점을 뒀다.

랜선으로 만나는 국립생태원은 열대, 온대, 사막기후 체험 영상으로 아시아 기후를 경험하도록 구성했으며,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하는 온라인 기부활동도 진행한다. 오는 26일 진행되는 어린이 문화예술교육포럼은 '팬데믹 시대, 어린이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진행되며 ACC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이번 포럼은 팬데믹 시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사례와 담론을 공유하는 자리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코로나 블루로 지친 심신 달래세요

산수미술관 28일까지 '두꺼운 파랑' 전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무력감과 상실감에 빠지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하는 전시회가 열린다. '코로나-블루'로 사람들에게 익숙해진 '파랑'이라는 색에 주목한 전시다.

산수미술관(광주시 동구 밤실로 64-1)은 오는 28일까지 '두꺼운 파랑'전을 진행한다. 4명의 신진 기획자가 준비한 이번 전시에는 강운, 윤세영, 9-345 작가를 초청해 파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을 선보인다.

강운 작가는 '공기와 꿈', '물 위를 걷다', '마음 산책' 세 시리즈를 선보인다. 작가의 묵묵히 걸어가는 수행의 길은 작품 전반에 층층이 쌓여 우리의 마음속에 파랑을 일으키고 두꺼운 울림을 선사한다.

낮선 환경과 맺는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특징들을 작품으로 치환해내는 윤세영 작가는 설치 작품 '생성지점'을 통해 생성과 소멸의 순환 고리처럼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도 잘 견뎌내면 언젠가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소멸을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뜻을 암시한다.

9-345의 '파란(波瀾)'은 질문지에 답을 써내려



윤세영 작 '생성지점'

가며 비밀이나 고민을 털어놓게 하는 작품이다. 어두운 공간에서 빛을 의지해 관람자가 쓴 글씨는 특수한 빛을 비추어만 확인할 수 있어 온 정신을 집중해 글을 쓰며 치유를 경험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평등한 기획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여성기획자학교 3개 프로젝트

11월 한달간 광주 3곳서 진행

11월 한 달 동안 여성기획자들이 진행하는 각각 각색 프로젝트가 광주 곳곳에서 진행된다. '여성기획자학교-평등한 기획은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가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광주평생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청년인문공간 러브앤프리에서 주관하며, 일상 속에서 여성과 성평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문화 기획을 하는 여성기획자들을 양성하는 교육과정의 결과를 선보이는 프로젝트이다.

참여자들은 수업을 토대로 지역 곳곳에서 '인문학·마을공동체·예술 전시'를 매개로 3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먼저, 청춘발신협동조합과 함께하는 마을공동체팀은 '삼삼오오 수상한 그녀들의 연대기' 프로젝트를 21일 청춘빌리지1호(광주시 서구 양동 발산마을)에서 진행한다. 발산마을의 70~80대 여성들과 20~30대 여성들이 만나 여성영화 관람, 도예 등의 활동을 하며 여성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연대한다.

독립큐레이터그룹 오버랩과 함께하는 예술전시

팀은 도큐먼트 전시 '보이는 걸 보인다고 말할 때'를 오는 24일까지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 위치한 오버랩 공간에서 연다.

독립서점 '러브앤프리'와 함께하는 인문학팀은 음식을 통해 여성 서사를 이끌어 내는 인문프로그램 '음식 그리고 그림일기'를 진행한다. 음식이라는 소재로 그림일기를 통해 여성의 이야기를 표현하고자 기획됐다.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러브앤프리에서 진행하며 사전 참가자를 모집한다. 문의 010-2843-5567.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 광주국제교류센터 'GIC클라빌레' 연주회

22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

광주국제교류센터 GIC클라빌레(예술감독 김현욱·사진)가 정기연주회 '평화의 노래'를 연다. 공연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기획됐으며 22일 오후 3시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GIC클라빌레가 주관하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등이 후원한다.

레퍼토리는 카치니 '아베마리아', 립스키 '옥타브', 로시니 '탄식하는 어머니(슬픔의 성모)', 도

플러 '안단테와 론도 작품번호 25번', 르비잘리 'I Believe', 마스카니 '아베마리아' 등이다.

또, 벨리니 '보라, 노르마어', 베토벤 '피아노 크리오 4번 작품번호 11번', 라이프트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송창식 '내 나 내 거'도 들려준다.

무대에는 소프라노 박경숙·김선희·박수연·이지연·윤하나·김미옥·송미나·김진남, 테너 윤승환·강동명·고규남·바리톤 방대진·김경천 등이 오른다. 바이올린 김도연, 첼로 진재리, 플룻 이현경, 피아노 함지연·전현주 등도 참여한다. 문의 010-2324-8644.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린알로에

#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